

현장시선



류용수 제주지방개발청장

작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감귤 판매량이 많이 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느 해에 비해 당도가 높았고 감귤과 코로나19 바이러...

조달청도 올해 코로나19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상생·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혁신조달과 지역경제 활성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점 추진 사항은 혁신성장 및 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가속화이다. 혁신조달 확산의 깊이와 속도를 높임으로

제주지역도 혁신조달 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제주지방개발청은 작년 9월부터 도내 5개 기관과 함께 '혁신지향 공공조달 협의체'를 구성해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활동을 하고 있다.

는 혁신수요 발굴, 도전적 혁신과제 제안, 혁신제품 구매를 통한 판로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창업과 R&D 지원기관으로서 혁신제품 발굴과 개발지원, 혁신제품의 테스트 결과를 통해 제품상용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주지방개발청은 혁신수요·혁신제품·기술매칭을 지원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해 활동을 하고 있다.

가 선정됐다. 이들 3개사의 제품은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구매자가 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걱정해야만 하는 기업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곳곳에 걱정만 하지 말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혁신조달 정책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열린마당

무심코 막은 비상구 '절망의 문' 된다



박재호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화재 현장에서 우리는 비상구를 통해 본능적으로 탈출하려 한다. 하지만 비상구가 막혀있다면 어떻게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후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이 엄습해 올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비상구가 '절망의 문'으로 바뀌는 안타까운 상황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비상구가 곧 '생명의 문'이라는 표현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해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에는 문화·집회 시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판매시설, 의료시

설, 숙박업소,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카페, 스크린골프 포함)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방화문 폐쇄·훼손 및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금, 모두가 지친 이때를 틈타 부주의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영업의 편의와 관리의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길 수 있다.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비상구에 관심을 갖고,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한다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판 대장동?... 행정사무감사 관심

오동봉공원 특혜 규명 이목

○...현재 진행중인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오동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 규명에 관심이 집중.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리는 오동봉도시공원 사업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한 후 조건을 바꿔 이익을 얻도록 미리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주장.

한 공무원원은 "도의회에서 동의해 준 사업을 다시 재검토 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회에서 처음부터 검증을 제대로 해야 했던 사업이었다"고 지적. 고대로그자

축산단체들 청정 축산 결의

○...제주도 축협운영협의회는 오는 18일 5개 축산단체(한우·한돈·양계·제주마·양봉)와 함께 '청정축산 환경보전 결의대회'를 열 예정. 결의대회는 축산기능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악취 저감과 분노 관

리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운영과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기라는 의지를 담은 행사.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환경과 사람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구현을 ESG 경영비전'으로 삼았는데, 이번 결의대회는 도내 축산농가 스스로 ESG 경영을 다짐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여전히 비 새는 교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전히 비 새는 학교' 문제가 거론.

오대미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비 새는 학교 및 조치 현황을 보면 비 새는 학교 수는 82.2%인 157개교로 조치 완료된 학교수는 67개교에 그쳐.

오 의원이 "아직도 우리 학교의 반은 비 새는 학교"라며 빠른 해결을 주문하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력하겠다"고 답변. 오은지기자

사설

오름도 확인 않고 건축허가 내줬다니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항공레이더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건설예정지가 국립공원 내 절대보전 지역이자 기생화산이라는 점이다. 이런 절대보전지역에는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항공레이더 건설예정지가 오름이

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를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제주 남부지역 항공로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는 내구연한(14년)이 도래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를 최신 기술이 도입된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로 교체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 항공레이더는 한라산 1100고지 인근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들어선다. 이미 지난 4월 건축허가에 이어 최근 문화재현상변경 허

가도 나면서 이달부터 본격 공사

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예정지가 기생화산인 삼형제큰오름 정상에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에 어떻게 항공레이더 설치 허가가 났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 알다시피 국립공원인 한라산 전체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는가. 때문에 설명 반드시 필요한 시설일지라도 국립공원임을 감안한다면 사정에 보다 더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 했다. 그러기는 커녕 국립공원내 오름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줬다는게 말이 되는가. 예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예정지가 매립·개발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논란 끝에 이를 해제해 공사한 전례가 있어서 그렇다.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앞장서 막아야 할 제주도가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하면서 도민들에게 '환경보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제주 떠나는 청년들, '해법' 전면 쇄신을

제주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해결은 커녕 심화되고 있다. 도정에 의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가. 일찌감치 도청 직제

도로 일자리 정책에 전력을 기울여 온 도정을 무색케 한다. 청년 일자리 부족은 젊은층의 제주 이탈 가속화로 '지역소멸'로도 연결돼 구직·구인기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올인할 전면 쇄신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도내 청년 실업자 동향은 매우 심각하다. 통계청 집계결과를 보면 3분기 도내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기보다 0.5%포인트, 실업자는 1만명으로 2000명(27.5%) 증가했다. 청년 실업자는 작년 같은기간보다 1000명(29%) 늘어 4000명이고, 청년실업률은 8.2%에 달해 1999년 통계 이후 4번째로 높았다. 당달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제주를 떠난 인원도 크게 늘었다. 2018년부터 전출인

구 증가세로 전환돼 145명 순유출 이후 2019년 1029명, 2020년 1178명 등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젊은층 이탈 가속세다.

제주도 심각한 청년 일자리에다 설을 떠나는 젊은이들로 암담한 미래를 맞이한 안된다. 청년실업 해법이 현실적 어려움에도 '지역소멸'위기로 이어진다는 절박함을 늘 지녀야 한다. 도정이 그간 벌여온 일자리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때다. 많은 예산을 들인 인재양성 교육훈련과 지역내 안정적 취업간 알마름 성과를 냈는지, 정책으로써 놓친 점은 없는지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행정은 일자리 사업의 '혼풍'을 줄곤 말하지만 현장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삭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하다. 도정은 민간과 함께하는 정책 실현에 중점을 뒤 구인·구직기간 끝없는 소통에 나서야 한다.

부고 김광식(前 농진청 감귤시험장장) 아버지 광신김공 승추(향년 100세)께서 서기 2021년 10월 14일 08시 4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김광식 010-4445-3998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진주강씨 낭숙(향년 9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 아들 조용철 며느리 김난희 딸 조순자 사위 김익현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 010-4450-4316 / 010-6550-4316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010-6500-2329